

오 현 이

결 론

도시 국민학교 아동이 가지는 유병량과 상병분포, 의료형태별 의료이용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1977년 11월 15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일부 국민학교 아동 1,542명(남 796, 여746)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) 학부모의 교육정도별 분포는 총 380명중 고졸 35.9%, 대졸 26.8%, 중졸 20.3%였으며, 부모별로 보면, 아버지의 경우 대졸 41.6%, 고졸 32.9%였고, 어머니는 고졸 39.7%, 중졸 28.2%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았다.

2) 학부모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적 기술직 종사자가 27.6%, 사무직 26.8%, 판매직이 21.1%로 대부분이 3차산업 종사자였다.

3) 학동의 유병율은 21.4%이고 남학생이 15.1%, 여학생이 28.2%이며, 학년별로는 5학년이 30.5%로 가장 높고 2학년이 12.2%로 가장 낮았다.

4) 이용율에 있어서 두당발생율이 24.5%, 건당발생율이 31.8%였고 유병율은 21.4%였다. 학동의 유병일수는 전체적으로는 3.10일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길고(남학생 3.01일, 여학생 3.19일), 학년별로는 1학년이 4.25일로 가장 길고 5학년이 2.10일로 제일 짧았다.

5) 상병분류별 상병례수는 총 380례중 호흡기계질환이 36.8%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질환이 27.1%로 차위였다.

6) 의료이용도는 약국이용율이 41.2%, 병, 의원통원치료 39.7%로 현대의료의 요구가 많았다.

7) 교육별 의료이용도를 보면 무학, 국졸, 중졸의 경우 약국이용율이 높았고, 대졸, 고졸의 경우 병, 의원통원치료가 우세했다.

8) 직업별 분포를 보면 사무직, 전문적 기술직, 서비스직에서는 병, 의원통원치료가 더 많았고, 판매직, 기능생산, 단순노동, 무직의 경우에는 약국 이용율이 더 높았다.

순천지방 여고생들의 월경과 정신위생에 관한 조사

순천간전논문집 3집, 1977.

이 강 오

결 론

1977년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순천시내 2개 여자고등학교 1.2학년 1,513명을 대상으로 월경과 정신위생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- 1) 초경연령은 13세부터 15세까지가 전체의 87.1%였고 평균 초경연령은 14.34세였다.
- 2) 현 연령별 초경연령은 연령이 낮을수록 초경연령이 빨라지고 있다.
- 3)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허약자에 비해 초경연령이 빨랐다.
- 4) 월경주기는 규칙적인 학생이 66.1%이며, 불규칙적인 학생이 33.1%였다.
- 5) 월경지속기간은 4일간 지속된다가 32.6%이며, 5일간 지속이 24.5%, 3일간 지속이 23.8%이고 평균지속기간은 4.35일이었다.
- 6) 월경량은 정상인 학생이 72.4%, 많은 학생이 10.4%, 적은 학생이 16.9%이었다.
- 7) 월경시 증상의 유무에 있어서 자각증상이 있다고한 학생이 75.8%이고, 없다고한 학생이 24.2%이었다. 자각증상으로는 배가아프다는 학생이 51.8%로 수위이고, 허리가 아프다가 34.3%, 활동의욕이 없다가 33.3%이었다.
- 8) 월경통이 있을 때 처리방법으로는 무처치 50.5%, 진통제 복용이 18.8%이었다.
- 9) 월경전 초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한 학생이 전체의 73.2%이고, 지식없이 경험한 학생이 26.8%이었다.
- 10) 초경시의 심리반응으로 무섭고 놀랐다가 54.3%, 부끄러웠다가 35.7%로 생리적 현상인 월경에 대해 아직도 많은 학생이 공포감과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.
- 11) 월경에 대한 현재의 심리반응도 우울하다가 34.9%, 불안하다가 29.6%, 싫다가 28.3%이었다.
- 12) 대상자들의 여성생리의 관심도는 75.6%가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었다.

일부지역 중고등학교 양호실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

순천간전논문집 4집, 1978.